

로저 그린 박사, 종교개혁부터 현재까지, 강의 2, 중세 가톨릭교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로저 그린 박사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세션 2, 중세 가톨릭교입니다.

하지만 서론적 발언으로, 강의 1을 시작하지 않고 강의를 소개하면서, 이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 내내 이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우리가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즉 전공을 전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의미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 사건, 사람들을 언급했고, 우리는 정말 그것에 충실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신학에서는 겉길로 빠지기 쉽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그런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부전공을 하거나, 알다시피, 주요한 것을 부전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신학을 논의할 때 겸손의 정신을 갖고, 신학에 대해

말할 때 경건의 정신을 갖고, 신학에 대해 말할 때 겸손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매우 겸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사람으로 세인트 오거스틴을 생각합니다. 세인트 오거스틴은, 아시다시피, 방대한 글을 썼고, 세인트 오거스틴이 우리 시대에 컴퓨터와 함께 살았다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제 말은, 정말 놀라웠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놀랍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오거스틴은 많은 겸손과 많은 경의를 가지고 전체 신학적 사업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자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이는 하나의 예일 뿐이며, 삼위일체에 대한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말하면서 저지른 실수 등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이 모든 주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많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세 번째 사항은 신학의 공식화가 교회 생활에서 정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이끌고, 동기를 부여한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의 생활과 사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학, 신학적 진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들이 이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교조의 형성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고백자 막시무스라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고백자 막시무스는 황제가 신학적인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식 때문에 황제와 약간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자 막시무스는 그에게 맞서서, 아니요, 당신이 하는 말은 틀렸다고 말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갈라놓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생으로 인해 고백자 막시무스는 혀가 잘리고 오른손이 잘려 더 이상 올바른 신학을 말하거나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신학을 위해 살고, 죽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삶에 결정적이었고, 교회의 삶에 정말 중요했습니다. 네 번째로,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사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질문을 던지고 신학이 성경과 교회의 신학적 발전에 근거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볼 것이고, 항상 어느 것이 먼저인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먼저 오고 신학이 질문에 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신학이 시대를 이끌고 역사를 이끄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 먼저 옳을까? 제 생각에는 순환적인 것입니다.

신학은 시대가 묻는 질문에 답 하지만, 반면에 신학은 종종 역사가 답해야 할 질문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환적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대에서 하듯이 그런 순환적 역사를 지켜볼 것입니다.

좋아요, 마지막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학이 신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신학은 신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신비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신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으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위대한 신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그리스도론, 믿음에 의한 의화를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조명과 교회가 가르친 바를 감안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신비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훌륭하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신학을 논의할 때에도 우리의 두뇌를 문 밖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해 신이 주신 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학문적 연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의 삶과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신학을 위해 자신의 삶과 마음 속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연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단순한 학문적 연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고 실존적인 무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과 이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함에 따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좋은 토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자굴에서 만나서 텍스트를 다룰 때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논의할 때에도 많은 좋은 토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하려고 했던 몇 가지 서론적 발언일 뿐이지만, 여기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 계속 진행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강의 1을 볼게요. 강의 번호와 제목으로 볼게요. 여기 강의 요약 12페이지에 있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교와 정당화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다시피, 저는 다섯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다섯 가지 주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잠시 후에 죄의 본질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여기서 서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강의와 그 이후의 강의에서 우리는 존 칼빈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루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칼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저는 현대 로마 가톨릭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1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학적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들어온 세상, 칼빈이 들어온 세상에서요.

제가 그리는 로마 가톨릭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와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교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직면해야 할 진짜 신학적 딜레마와 신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정말 이해하고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A, B, C, D에서 하는 일은 죄, 연옥, 참회, 방종의 본질, 제가 거기서 하려는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퍼즐과 같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 E는 종교 개혁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존 칼빈으로 넘어가기 전에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이 모든 것에 응답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쁜 그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하나는 다른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각을 퍼즐에 넣으면, 각각이 서로 교차합니다 . 어떤 의미에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아요. 우선 중세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정의했는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는 죄를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 만약 당신이 이미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중세 교회에서 정당화의 본질에 관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죄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교과과정에 있지만, 저는 그것들을 여기에도 올려놓을 것입니다. 정말 대죄입니다.

좋습니다. 대죄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교에서 대죄란 무엇입니까? 대죄는 신의 법에 대한 큰 범죄입니다.

그것은 대죄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중 하나를 어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큰 범죄입니다. 그것은 대죄입니다.

좋아요. 왜 대죄라고 부르나요? 대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신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당신을 영원한 형벌로 보낼 죄는 바로 그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죠.

그건 좀 나쁜 소식이에요. 대죄를 저지르세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을 영원한 형벌로 보냅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대죄는 고백될 수 있고, 고백되어야 하며, 사실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죄를 고백한다면, 당신은 대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대죄를 고백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사면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백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대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대죄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십계명 중 하나를 어겼습니다. 당신은 사제에게 당신의 대죄를 고백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에서 해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여전히 그 대죄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그 대죄에 대해 이생과 다음 생에서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죄는 꽤 나쁘죠. 십계명 중 하나를 어기는 건 꽤 나쁘죠,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대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어와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죄는 사소한 죄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사소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죄는 신이나 이웃에 대한 사소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신과 이웃에 대한 사소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사소한 죄는 당신의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소한 죄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원한 형벌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죄를 지으면, 저지른 사소한 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따릅니다. 그래서 2와 2를 더하면 5가 됩니다. 그게 대죄인가요, 사소한 죄인가요? 2와 2를 더하면 5가 되면 사소한 죄입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신이나 이웃을 모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상인이고 2와 2를 더해서 5를 청구한다면, 그것은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죄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2와 2를 더해서 5를 얻고, 그냥, 아시다시피, 잊었거나, 뭔가를 잊었다면, 그것은 사소한 죄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죠? 문제는 사소한 죄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사소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교회의 평신도로서, 그런데, 여기서는 중세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신도로서, 여러분은 중세 세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행하고 세상을 볼 기회 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는 당신의 작은 마을에 거의 제한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 앞 세대에도 사실이었고, 당신 뒤 세대에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세계는, 당신의 종교적 세계는 그 지역 사제에 의해 해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죄와 사소한 죄 사이에 섬세한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제가 사소한 죄라고 부르는 것을, 옆 마을의 사제는 대죄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대죄와 사소한 죄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잘 구별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당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항상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저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은 당신의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것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이 했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죄도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싶지 않고 , 영원히 신과 분리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신의 일상이고, 그것이 당신의 작은 마을에서 당신이 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사제가 무엇이 대죄이고 사소한 죄인지 말해 줄 것을 믿어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잠깐만 빨리 감아보죠. 그런데, 당신이 죄를 고백할 때 신부는 당신의 죄를 사면해 주겠지만, 우리는 여기 다른 섹션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잠깐만 빨리 감아 마틴 루터에게 가보죠.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훌륭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고,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마틴 루터는 훌륭한 로마 가톨릭 신자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 하루에 6시간씩 죄를 고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6시간 동안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생각하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해신부, 그의 아버지 고해신부조차도 그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듣는 데 지쳐서 하루에 6시간씩 고백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하루에 6시간 고백했을 때 그가 한 일은 어떤 의미에서 중세 세계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6시간씩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로마 가톨릭 문화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결국 그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죄, 사소한 죄,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고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중세 세계에서 꽤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다룰 퍼즐의 네 가지 조각에 관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고, 다루는 가장 짧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대죄나 사소한 죄에 대한 게 있나요? 바로 사소한 죄였습니다. 보세요, 사소한 죄.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대죄, 사소한 죄. 실수한 거야, 그렇지. 하지만 그 실수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질문은, 내가 대죄의 선을 넘었는가? 그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루터가 하루에 6시간 고백하겠다고 한 거야.

저는 제 모든 기반을 다룰 겁니다. 더 넓죠. 그렇죠.

우리는 실수를 죄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5에 2와 2를 가지고 있었고, 그냥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실수입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은 수요일인데 좋은 하루 보내지 않나?라고 말한다면, 그건 실수입니다. 맞아요. 문제는 중세 세계에서는 지역 사제가 말해줄 거라고 믿어야 했고, 어떤 사제가 말하는 것은 사소한 죄이고, 다른 사제가 말하는 것은 대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부족하면,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루터가 6시간 동안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에 대한 다른 종류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죄.

오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오늘 죄를 고백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죄. 좋아요,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시작하죠.

좋아요, 여기 B는 연옥 교리입니다. 연옥 교리. 좋아요, 연옥 교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세 세계에서는 매우 컸습니다. 연옥은 중세 세계에서 정말, 정말 컸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중세 세계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 세계에서는 유아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세 세계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순간, 당신의 원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원죄는 씻겨집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도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유아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세례를 받은 순간, 만약 당신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은 즉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조금 빠르고 느슨하게 다루려고 했습니다. 콘스탄틴,

아니면 콘스탄틴, 토마토, 토마토, 제 생각에는,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임종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세례를 받고 죄를 짓지 않으면 바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본래의 죄와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씻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그런 이유로 임종 직전까지 세례를 미루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고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아기에 세례를 받고 20년이나 30년 정도 살면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바로 죽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은 죄를 지을 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 벌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 생에서 벌을 갚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그들이 그 벌을 어디에서 갚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벌을 갚을 곳은 연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옥은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이 죽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가는 곳이며, 그들은 이생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치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로 인한 형벌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옥에서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화되고 있는 동안만, 아시다시피, 불 속에 철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것이 철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화되는 동안만 그들은 결국 신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옥, 이 처벌의 장소, 정말로 정화의 장소로 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당신이 신앙을 위해 순교한 경우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 순교한 경우, 당신은 이미 연옥을 거쳤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연옥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즉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 신앙의 성인 중 한 명이고, 예를 들어 마리아처럼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면, 마리아는 연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늘로 승천하여 바로 하늘로 데려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교회의 성인 중 한 명이라면, 당신은 연옥에 가지 않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불만이 있지만, 많은 경우 더 높은 성직자들은, 만약 당신이 더 높은 성직자, 특히 교황의 수준에 도달한다면, 당신은 바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당신은 연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한, 당신은 신이 당신에게 하라고 주신 모범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중세 세계에서 많은 성직자들이 정말로 스캔들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에 스캔들 같은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제 죄를 고백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스캔들 같은 추기경이나 교황은 바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들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연옥에 갈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 교황이 바로 천국에 갔다는 건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추기경들은 천국에 갔다는

것도요. 소문이 돌았죠, 그렇죠? 그들이 작은 마을,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특히 루터 이후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돌았어요.

루터, 인쇄기의 발명, 그리고 마틴 루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그들은 사제가 꽤 추문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마을에 살 수도 있지만, 사제는 기꺼이 그들이 가는 연옥이 아니라 천국에 바로 갈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응, 공평하지 않았어요. 연옥은 공평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 거기에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지은 죄와 당신의 죄에 따른 벌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잠깐 후에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

연옥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개신교가 받아들이는 정경에 대한 성경적 언급은 없지만, 로마 가톨릭교가 받아들이는 성경적 기록에 근거했습니다. 이 교리는 교회의 교회 가르침의 전통뿐만 아니라 마카비서 2장 12절 39-45절에도 근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생각나면, 마카비서 2장을 가져와서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은 전통에서가 아니라 성경 구절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느꼈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들이 하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개혁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신학적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 교리가 세워진 가정은 이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교회의 사역과 사제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형벌을 요구하는데, 이생에서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다음 생에서도 이 형벌을 요구합니다.

이제, 결국 당신은 가서 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옥은 지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옥은 신자들이 신을 만나러 가는 정화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이 와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종류의 신을 개발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신을 건네주고 있었을까?라고 말했을 때, 이런 종류의 신의 본성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시는 신의 본성을 건네주었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분노로 인해 이생과 저생에서 우리에게 공정한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마을의 평균적인 로마 가톨릭 신도가 연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로마 가톨릭 신자는 연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연옥의 중세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일 뿐이고, 당신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것은 정화이고, 불이다.

이제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연옥을 통과한 후에 그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도록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연옥에 대한 일반적인 중세적 이미지였습니다.

좋아요, 만약 당신이 마을에 사는 평범한 일상인이고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면, 연옥에 대해 떠오른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 당신이 연옥에 대해 생각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당신이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은, 당신은 당신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의 모든 친척, 당신보다 먼저 죽어 간 모든 친구들은 연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연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매우 친절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승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들을 생각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꽤나 암울하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죽은 친척과 친구를 생각할 때, 바로 여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신의 생각 과정에서 1순위입니다. 좋아요, 2순위, 당신이 확실히 아는 두 번째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옥에서 스스로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300년, 400년, 500년 또는 1000년 동안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방식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웃으며 어떤 의미에서 참아내야 합니다. 좋아요, 세 번째, 신은 그의 정의감이 충족될 때까지 그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개혁자들이 반발할 신의 이미지가 다시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의 정의가 충족될 때까지 이 사람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사진 속 천사들이 마침내 연옥을 통과한 두 사람을 데려갈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두 사람에게 완전히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모든 형벌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질문은, 어떤 종류의 신에 대한 비전인가? 어떤 종류의 신에 대한 관점인가? 좋아요, 네 번째, 결국, 여기서 결국이라는 단어는 연옥의 역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중세 세계의 로마 가톨릭 사상에서, 연옥에 있는 친구와 가족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가 친구나 가족이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도울 수 있는 종류의 신학 체계를 도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실제로 당신의 친구와 가족을 연옥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는 면죄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네 번째 요점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연옥이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어머, 저는 어머니를 연옥에서 구하거나 아버지를 연옥에서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연옥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당신의 죄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지, 당신의 죄에 어떤 종류의 처벌이 따르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갚을 것인지, 연옥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갚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년, 40년, 100년 또는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을 연옥에서 꺼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회계를 해야 합니다. 글썄요, 연옥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따라서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은 교황입니다. 교황은 연옥을 책임집니다.

교황은 형량 길이를 결정합니다. 교황은 형량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연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황 한 사람의 관할권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한 사람에게 약간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약간의 권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연옥을 책임지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책임진다면, 그것은 많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황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많은 권력이지만, 나쁜 교황의 손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교황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면죄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황이 사람들을 연옥에서 즉시 꺼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누군가를 연옥에서 즉시 꺼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옥은 교황청과 연결되어 있고 교황청은 연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떼려낼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떼려낼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다음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고 있고, 한 사람이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잠깐 거기서 멈추죠.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은 죄, 대죄, 사소한 죄, 두 가지 죄 등입니다. 그게 퍼즐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은 연옥으로, 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벌을 갚기 위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일을 끝내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연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은 연옥이야.

그럼, 누가 죄와 연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나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나요? 이 가톨릭 중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세계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계였습니다. 여기 뭔가

있나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 좋아요, 좋습니다. 참회로 넘어가죠.
참회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면죄부로 넘어가죠.

좋아요, 그림의 세 번째는 참회입니다. 이제 참회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성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참회는 성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눈에 보이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일 뿐이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참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좋아요, 우선 성사로서요.

좋아요, 성사로서 참회 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죄입니다.

글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 첫 걸음에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게 첫 번째 큰 걸음이에요, 당신은 죄를 지어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걸음은 당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이 사제에게 가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대죄, 사소한 죄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세요.

당신을 어느 정도 덮을 거라는 거예요 . 그러니까 정말, 정말 중요해지죠. 알겠어요, 참회의 전체 시스템에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사제로부터 사면을 받는 거예요. 사제가 당신의 죄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면을 받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 사면을 선언하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 말은,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제가 당신의 죄에 따른 벌을 갚기 위해 인생에서 해야 할 특정한 일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당신에게 일을 할당할 것이고, 이것들은 당신이 할 참회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중에 그

일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것이지만, 사제는 당신에게 그 참회의 일을 할당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네 단계입니다. 죄, 고백, 사제의 사면, 그리고 사제가 당신이 해야 할 벌을 갚기 위해 해야 할 참회의 행위를 할당할 겁니다. 이제, 성사로서의 이 시스템 바로 아래에서, 아시다시피, 빠르고 느슨하게 놀아보세요. 당신이 사제를 떠난다고 가정하면, 사제는 당신의 죄를 사면하고, 당신이 해야 할 몇 가지 참회의 행위를 할당합니다.

당신이 떠나서 당신이 결정한다면, 나는 그런 고행을 하지 않을 거야. 농담이겠지.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대죄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그 교회로 돌아가서 그 사제에게 당신이 그가 당신에게 할당한 회개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때까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그 죄도 고백해야 하고, 그래서 당신은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회개의 성사 전체에 내장된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회개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대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실한 신자라면, 그리고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기쁘게 하고 싶다면, 회개의 행위를 해야 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환입니다. 중요한 순환입니다.

네 단계. 당신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이 성사로서의 참회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고행에 대한 신학적 이해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고행에 대한 신학적 그림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행을 정의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고행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의 신학적 틀에서 참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참회를 사제가 지정한 일로만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참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죄는 그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처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벌을 없애고 속죄를 하는 것에 대한 매우 간단한 종류의 이해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참회에 대한 질문은, 왜 이 모든 참회 시스템이 교회에 의해 시작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교회가 이것을 했을까요? 사실, 교회가 참회를 시작하고 참회를 성례전으로 교회의 삶에 가져온 데에는 꽤 긍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약간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하고, 죄를 지으면 고백하고, 사면을 받고, 그런 다음 이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약간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하는 데는 정말 긍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참된 신자들을 교회의 품에 안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신자들을 교회 생활과 지역 사회 생활에 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은총의 상태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은총의 상태로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종류의 고행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제는 지역 마을에서 신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사제는 모든 신도를 교회에 붙잡아두고, 그들이 양떼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잃어버린

양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종류의, 저는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것에 대해 생각했던 것처럼, 아기와 목욕물을 함께 버리는 식으로 참회를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질문은 중세 로마 가톨릭 세계에서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속죄가 주어질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어떤 종류의 속죄를 정할까요? 저는 몇 가지 일반적인 속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이 많이 있지만, 여기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금식. 사제는 일정 시간 동안 금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간 후에, 당신은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는 당신의 죄를 사면합니다. 사제는 당신에게 금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은 당신이 죄를 지었지만, 이제 당신은 죄에서 사면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것은 당신이 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는 회개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는 자비의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자 중에서 자비를 베푸는 일, 가난한 사람 중에서 자비를 베푸는 일,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면, 사제가 회개의 표시로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잡다한 것들 뿐이지만, 또 다른 회개의 일은 기도였습니다.

사제는 주기도문을 일정 횟수 외우라고 기도에 지시할 수 있고 ,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개의 일,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기쁘가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에 사는 게 기쁘가요? 21세기에 사는 게 행복한가요? 중세 시대에 사는 게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편두통이 있거나 심한 치통이나 심한 관절염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세 세계에서는 평생 그것으로 고생했습니다. 편두통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했거나 온갖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치통을 앓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이가 항상 아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알죠? 여러분은 그걸로 고생했을 뿐이에요 , 알죠. 힘든 세상이었어요.

어떤 이유로 팔을 절단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팔에 질병이 생겨서요.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마취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아시다시피, 팔을 내밀면 그들이 잘라내고, 그게 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웃으며 참아내는 거죠. 아시다시피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절단했다면, 으악. 그래서, 저는 현대 세계에 살고 있어서 기쁩니다. 제 말은, 저는 현대 세계에 사는 것이 기쁩니다. 특히 의학과 질병과 치료법 등에 관해서는요.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제가 당신에게 부과할 속죄 중 하나는 참을성 있게 고통받는 것입니다. 참을성 있게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많은 질병 , 통증, 고통,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참을성 있게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속죄의 표시로 당신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통에 대해 신을 원망하지 말고 참을성 있게 고통받으세요. 속죄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무언가로서,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겨두었으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 주 수요일쯤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개의 방법은, 뭐랄까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나열한 것들은 그저 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한 마지막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교회가 시작한 면죄부 제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속죄 수단으로 면죄부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이제 면죄부에 대한 전체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종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방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종은 연옥에서 일정 시간 동안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종은 연옥에서 시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연옥에서의 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죄부 제도 전체가 중세 세계로, 루터 세계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넘어가면서 주된 속죄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퍼즐의 마지막 조각, 숫자 D, 면죄부 제도 전체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회에 대해 언급하자면, 그것은 참회 시스템의 일부이고 등등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회는 행위의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참회와 행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글썄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지상에 어떤 의미에서 재판소를 세운 것입니다.

사제들은 재판소, 신의 재판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신의 재판소의 일부인 사제들은 우리가 언급한 죄, 고백, 사면, 참회에 관한 이 전체 행위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그것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제, 사제들은 여기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바닥, 아니, 미안합니다. 바닥, 여기 있습니다. 사제들이 당신에게 속죄를 할당할 때 도움을 주는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 생각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세 세계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과업의 과업이라고 부르죠.

좋아요. 이제, 과업의 공로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 포스트모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계에서든 우리 자신을 꺼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꺼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중세 세계로 되돌려야 합니다. 좋아요. 만약 당신이 중세 세계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삶을 상상하고 있고, 중세 세계의 삶을 현실적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상상하고 있어요, 아시죠, 황금의 거리가 있는. 당신은 연옥을 상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옥의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요. 그게 당신이 연옥을 상상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당신은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 지옥을 상상하고 있는 거군요. 하지만 당신이 세상을 상상하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의 방식이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 중 일부는 초과공덕의 일입니다. 그러니 초과공덕의 일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초과공덕의 일은 성인들이 행하는 초과 공덕이며, 이 초과 공덕은 성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순교자들은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는 바로 천국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그 자리에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천국에 갔어요.

좋아요. 마리아가 천국에 갔을 때, 그녀는 평생 많은 공로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연옥에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갚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죄가 없었으므로 교회는 가르쳤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갚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죄 없는 삶 속에서 많은 선행과 공로 있는 일을 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한 그 모든 공로 있는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창고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중세 시대에 살았다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마리아의 공로가 그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과 순교자와 교황과 모든 것, 거기에는 많은 공로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들을 과업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받고, 회개의 행위를 받았을 때 사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제는 또한 그러한 과분한 행위에서 끌어내고, 그 공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회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보물 창고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일들 중 일부를 마치 당신의 일인 것처럼 당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회개의 시간에 당신을 도울 것이고, 당신이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회계 측면에서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것이 거대한 종류의 회계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저는 면죄부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 많은 부분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상상적입니다.

하지만 사제가 마리아에게서 공로를 좀 따서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당신은 그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었습니다. 사제가 당신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에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고행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 몇 가지 과도한 공덕을 주고 있으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어딘가에서, 나는 과보의 행위에 대해 언급해야 하고, 여기가 과보의 행위가 참회의 전체 체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에 자연스러운 장소인 듯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우리는 현대 로마 가톨릭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세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저 그 세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루 쉬는 날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월요일 쉬는 날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너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월요일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시간은 빨리 흐를 겁니다. 노동절 주말 잘 보내세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이 분은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의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중세 가톨릭교입니다.